

PonderEd 자폐 (지적장애, ADHD 등 느린 아이 포함) 부모 교육과정

PAE

자폐, ADHD, 느리게 발달하는 아이들 (이하 '자폐'로 통합해서 표기) 등, 이 세상에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게 어색하다고 차별과 함께 말과 행동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물론 자폐의 특성상 행동이 다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두뇌 발달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자폐가 있으면서도 뛰어난 생물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템플 그랜딘 박사와 같은 사람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깎고 다듬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지고, 비슷하지 않다는 이유로 동물을 훈련하듯 행동을 교정하는 반복 훈련을 통해 두뇌를 개조하려는 시도 또한 너무도 당연한 접근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바로 봐야 할 때입니다.

두뇌가 발달하면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을 통제할 수 있지만, 행동을 교정해서 두뇌를 개조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이게 가능했다면, 군인과 같이 체계적인 행동을 하는 직업군의 두뇌 능력이 가장 뛰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보여주듯, 두뇌 능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PonderEd의 자폐 아이를 위한 언어 발달 및 두뇌 발달 교육과정은 PonderEd가 길이 없던 정글에 길과 다리를 만들 듯, 한 발작씩 디더가며 개발한 두뇌 발달을 위한 공부 방법과 가르치는 방법을 자폐 부모에게 적합한 형태로 접목해 새롭게 만든 교육과정입니다. 타인과의 교류가 어려운 자폐 아이 특성상 부모가 방법을 배우고 익혀 아이의 언어와 두뇌 발달을 끌어내야 하기에 부모 교육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I. PAE (PonderEd Autism Education) 교육과정의 초점

자폐 자녀를 키우는 부모 교육을 통해 일상에서 자녀의 두뇌 발달에 능동적으로 관여해 아이의 두뇌 발달과 언어 발달을 동시에 이루는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교육과정에 앞서 아래 안내 사항을 꼭 읽어주세요.

안내 1. 'PAE 099공개 코칭 세션'은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누구든 등록 후 참여하여 질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안내 2. 자폐 부모 교육과정은 PAE (PonderEd Autism Education)로 표기했고, 단계별로 100, 200, 300, 400, 500, 600번 대의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같은 단위의 수업은 동시에 수강이 가능합니다. 단계별로 수업이 진행되므로 하위 클래스를 듣지 않고 상위 단계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는 수업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규칙입니다.

안내 3. 이 교육은 자녀의 두뇌 발달 단계에 맞춰 적용할 수 있도록 짜여있습니다. 따라서 한 단계를 마쳤다고 다음 단계로 바로 진행하는 형식이 아닌 만큼, 필요한 경우

같은 수업을 여러 번 반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백 단위가 높은 수업을 들을 때에도
필요하면 낮은 백 단위의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낮은 백 단위의 수업을 듣는
사람의 높은 백 단위의 수업 수강은 제한합니다.

교육과정 주요 내용

분류 코드	주제	내용
PAE 099	공개 코칭 세션:	PonderEd 수업 수강 여부와 상관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수업입니다.
PAE 101	두뇌의 발달 과정을 통해 보는 자폐의 원인 및 접근법	PonderEd는 두뇌의 발달 과정을 6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단계별 두뇌의 정보처리 방법과 함께 자폐 아이의 두뇌 발달 과정을 비교하면서 아이의 언어와 두뇌 발달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PAE 102	통합 코칭 세션:	아이마다 발달 진행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므로 수업을 통해 아이와의 대화법 및 행동을 바꾸어 나가는 방법을 코칭합니다. PAE 101 수업을 하는 분 또는 하셨던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PAE 201	지식, 관찰의 개념화를 바탕으로 한 인지 능력을 늘리는 방법	자폐 아이의 경우 인지 능력을 스스로 키워나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관찰과 지식의 개념화 방법을 익히면서 동시에 아이의 인지 능력을 일상에서 키워주는 방법을 다룹니다.
PAE 301	개념의 연결을 통한 사고의 확장 방법	한 가지에 집중된 아이의 관심사를 개념의 연결을 통해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다루는 수업입니다.
PAE 302	개념화 + 개념의 연결 통합 수업	개념화를 통한 개념의 확장 및 동떨어진 개념의 연결 방법을 통합한 수업입니다.
PAE 401	개념의 상대성을 통해 의사소통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	자폐 아이에게 상대적 개념은 쉽지 않은 도전의 대상입니다. 일상에서 상대적 개념을 적용하면서 의사소통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다룹니다.
PAE 501	추상적 지식의 개념화를 바탕으로 사회적 의미를 의사소통에 포함하는 방법	상대성보다 더 어려운 과정이 추상적 지식을 개념화 한 후 의사소통에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추상적 지식을 개념화 하는 방법과 아이의 의사소통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끄는 방법을 다룹니다.
PAE 601	감정의 개념화와 대인관계의 확장	대인관계의 확장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자폐 아이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감정의 개념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상에서 아이가 감정을 개념화 할 수 있도록 이끄는 방법을 다룹니다.

PAE 001 공개 코칭 세션

내용: 자폐, ADHD, 느리게 자라는 아이 등,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세션으로 내 아이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룹니다.

대상: 누구나 (PonderEd 수업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해서 질문할 수 있는 세션)

날짜 및 시간: PonderEd 수업 스케줄에 공지

비용: 1만5천원 또는 15불 수업료 지불 방법 참고

참여 방법: 수업료 지불 후 open-session@PonderEd.ca로 이메일을 보내면 해당학기 줌 미팅 링크가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등록은 학기 시작 1주 전까지 받습니다.

등록 메일은 소통용이 아닙니다. 소통은 PonderEd100@gmail.com으로 해주세요.

PonderEd100@gmail.com에서 이메일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스팸 폴더를 확인해 주세요.

자폐 아이 두뇌 발달 방법 교육과정 (PAE)

내용: 배경 설명과 함께 자폐 아이 언어 및 두뇌 발달 방법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수업 시리즈입니다. 단계별로 진행되지만 일반 학교와 같이 단계를 올라가는 개념이 아닌 필요에 따라 반복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춰 수업을 선택하실 수 있지만, 아래 단위를 건너뛰고 상위 단위의 수업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수강료: PAE 099 공개 코칭 세션을 제외한 모든 수업의 수강료는 동일합니다.

수업 시간 50분 X 2회 연속 수업, 수강료 (50분 수업 45불 X 2 = 90불, 한국 원화 90,000원)

학기: 12주 인 경우 90불 X 12 = 1080불 (한국 원화: 1,080,000원)

교과과정

PAE 101 두뇌의 발달 과정을 통해 보는 자폐의 원인 및 접근법

PAE 102 통합 코칭 세션

PAE 201 지식, 관찰의 개념화를 바탕으로 한 인지 능력을 늘리는 방법

PAE 301 개념의 연결을 통한 사고의 확장 방법

PAE 302 개념화를 통한 개념의 확장 및 동떨어진 개념의 연결 방법

PAE 401 개념의 상대성을 통해 의사소통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

PAE 501 추상적 지식의 개념화를 바탕으로 사회적 의미를 의사소통에 포함하는 방법

PAE 601 감정의 개념화와 대인관계

II. PonderEd Education 교육과정 (PE)

내용: PonderEd 의 교육 프로그램은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파트는 PAE 와 같이 방법을 배우고 익히면서 타인(자녀)을 이끄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독립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스스로 사고의 독립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PE 교육과정은 숫자 단위가 없고 해당 분야의 연구를 이어가는 과정에 코칭 세션을 더해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폐 아이의 언어 및 두뇌 발달 방법 수업의 경우 수강자들이 자녀의 언어와 행동을 분석한 후 질문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수업에서 코칭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PE 연구 및 코칭 수업

대상: PAE 수업을 모두 마친 경우만 해당